

# 성도의 벗

8

"Sôngdo-wi Bôt"



# 성도의 벗

第3卷 第八號

순 서

1967年

卷頭言	李 虎 男	1
大管長 말씀	데이비드 오 · 맥케이	4
敎理問答	裋 一 文	8

## □ 特 輯 □ 靑少年少女大會

書 報		11
靑少年少女大會	池 永 達	15
젊은이에게 必要한 目標	裋 一 文	22
信仰안에서 生活을	스텔 · 왓스	29
우리의 임무는  믿음이다	박 태 옥	32
관 점	팔 마 자 메	34
美國 最長身 籠球팀이 온다	週刊 韓國	38
길든 표범들	韓 仁 相	39
靑少年大會 참관기	裋 永 天	43

의심없이 믿으라	車 鍾 煥	47
神殿儀式과 系譜事業	朴 在 岩	50
이달의 찬송	鄭 大 判	52

〈詩〉 創世를 그리다	趙 善 子	46
성도의 벗 퀴즈(6)	編輯 室	53
編輯 者에게		54

# 決斷의 瞬間

우리들은 自己의 方向과 目的을 決定해야 한다. 이것은 人間들  
에게 주어질 가장 貴한 祝福인 同時에 가장 큰 責任인 것이다.

李 虎 男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 有名한 蕩子의 比喩의 말씀이다. (누 15 : 11~32)

이 이야기는 젊은이가 財産을 相續 받은 후 집을 떠나 먼 地方에 가서 放蕩한 生活을 하다가 財物이 떠러지고 自己가 必要로 하는 物質을 감당못하는 生活의 어려움을 느끼자 옛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이다.

聖經에는 이 蕩子が 집으로 돌아간 후에 關한 生活에는 言及이 없다. 萬一 이 젊은이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 自己의 過去의 生活을 뒤우치고 마음을 고쳐 새로운 生活을 계속했다면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사람들은 그렇게 쉽사리 自己의 思考, 習性, 生活觀 等を 바꾸지는 않는다.

우리는 社會에서 집으로 돌아온 蕩子が 어느 程度의 時間이 흐르고 必

要한 財物을 얻으면 또 다시 그 옛적 生活을 계속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아무리 많은 回數를 거듭하면서 放蕩하여도, 집에 돌아오면 는 기쁜 마음으로 自己를 맞아주는 父母님들이 있다고 生覺들을 한다.

이들은 재물을 탕진한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 것으로 問題는 解決된다고 生覺하나 그것은 큰 誤解다. 蕩子를 벗어난다는 것은 歸家한 것만으로는 蕩子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새로운 自己를 形成하고자 決心할 때에만 可能한 것이다.

이 蕩子の 經驗은 우리들에게 좋은 敎訓이 될 것이다. 子息을 좀더 깊이 理解하며 사랑하는 아버지 의 態度를 잃고 느끼는 父兄님들이 蕩子와 비슷한 子息을 갖은 父母님들에게 줄 수 있는 敎訓, 그리고 동생의 그 台帽하고 放蕩의인 生活態度에 反하여 忠誠

하며 근면했던兄을 보며 느끼게 하는 것도 많을 것이다.

이 비유에서 보면 兄은 많은 歲月을 두고 아버님을 모셨으나 한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거나 계명을 不順從하지는 않았다. 實로 賞을 받기에 尙當하다. 그러나 그 比喻의 말씀에 依하면 兄은 自己의 生活觀과 다른 동생의 放蕩을 蔑시하여 동생이 歸家했을때 寬容과 사랑의 雅量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賞을 받기에 尙當치 못한 面을 얘기해 주고 있다.

이 蕩子는 自己가 願하든데로 生活하였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갖인 共通的인 弱點이다. 우리들은 學校나 家庭에서 혹은 教會에서 父母님 先生任, 그리고 指導者들로부터 무엇이 成功의 障礙며, 무엇이 不義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듣고 배우나 이것들을 實生活에 적용시키지 못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우리들 自身의 生活面을 잘 檢討해 보면 이 不幸한 蕩子나 사랑이 결핍된 兄의 一面을 所有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福音을 등지고 어두운 곳에서 自己自身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든 것을 잊고 기쁨으로 蕩子를 맞이한 아버지가 늘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곧 하나님의 품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忠誠하며, 근면하던 兄과 같은 생각으로 自己의 兄弟姉妹를 寬容과 사랑

으로 맞이해 줄 때 더욱 더 勇氣를 얻어 그리운 옛 福音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感情에 따라 限없이 옳지 않은 것들을 행하는 態度를 버리고 옳은 것을 택할 수 있는 能力을 發展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父母님 親友들 指導者들로부터 우리들의 不義하고 옳지 못한 態度나 傾向에 對하여 忠告를 들을때 우리들의 받아들리고 態度가 얼마나 反抗의인가를 生覺하면 놀라지 않을 수 있다. 옳은 勞勞로 忠告를 받아들였던들 지난날의 그 數 많은 失手와 무익한 經驗들을 除去할 수 있었을터인데 하며 너무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우리들은 外部의 壓力이나 條件으로 困하여 自己의 方向을 定하고 이 蕩子도 환경과 여러가지 條件으로 도저히 自己가 감당못하게 됐을 때 비로서 집으로 도라왔던 것이다. 實際 經驗을 함으로써 깨달으나 현명한 사람은 經驗을 하지 않고도 經驗을 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니 이 蕩子의 經驗을 通하여 우리들은 그와같은 經驗을 치르지 아니하고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印度의 어느 地方에서는 每年 많은 사람들이 “바이통”이라는 뱀에 依하여 生命을 잃는다고 한다. 이 무서운



뱀은 해마다 봄이 되면 풀숲이나 모래밭에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 地方 사람들은 全員이 나아가 이 뱀의 알들을 없애기에 바쁘다고 한다. 이 곳 사람들이 봄에 알을 없애지 않으면 알은 커다란 뱀이 되어 自己들의 生命을 害친다는 事實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 주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들은 恣意적으로 혹은 無意識적으로 自己自身을 멸망케 할 수 있는 罪의 씨앗을 자라게 버려둠으로써 悲劇의 終末을 招來하는 경우가 많다. 누가 그 예쁜 뱀의 알 속에 人命을 앗아가는 毒이 있는 줄 알겠는가? 그 알에서 나온 새끼 뱀을 본다 한들 그렇게 두려울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무서운 毒을 지닌 “바이통” 뱀이 사람을 물어서 人命을 뺏아 간 후에 평소에 게을렀던 것을 후회한들 무엇 하겠는가? 이런 悲劇을 없애려면 그것이 아직도 알의 狀態에 있을 때 없애야 한다는 것을 깨

달아야 한다.

實로 소 잃고 오양간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認識한다면 우리들의 罪의 病이 커지기 전에 病狀을 살펴 빨리 치료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當面해야 하는 많은 것들중 가장 重要한 것은 決心 또는 決斷이다.

우리들은 늘 善과 惡, 成功과 失敗, 근면과 태만, 幸福과 슬픔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들은 自己의 方向과 目的物을 決定해야 한다. 이것은 人間들에게 주어진 가장 貴한 祝福인 同時에 가장 큰 責任인 것이다.

우리들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하여 모든 分野에서 옳은 決斷을 내려야 되겠다.

決코 蕩子の 悲劇的인 結果를 맞보기 전에 봄에 “바이통” 뱀의 알을 없애는 印度사람이 되자.

(筆者: 宣敎部長 第二補佐)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  
이 여행이 혹 힘들지라도 하나님 계시니  
근심 걱정 다 버리고 힘껏 앞으로 나가자  
너의 가슴 부프리니 모든 것 잘 되리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찬송가 제 20 장

# 信儀를 지키라

데이비드 오·멕케이질문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찌어다.

디모데전서 6:20-21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에게는 저마다 지녀야 할 신의가 있습니다. “신뢰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특공대 공격전이라던가 전장에서만 용기의 발현이 필요한 것이 아니요, 하루 하루의 생존경쟁에도 필요한 것이며, 육체적 용기만이 아니라, 도덕적 용기도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열어 보면 죽음이 라던가 그밖의 고난에 봉착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신의를 지켰던” 이들의 기사가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의 통치자 앞에서, 애굽의 요셉

은 보디바 아내의 간사한 유혹의 시련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의 평의원들 앞에서 바울은 쇠줄에 결박된 채 아그리파 왕의 면전에서, 요셉 스미스는 투옥된 채 경악스런 간수들을 잠잠케 하는 중에—이러한 분들과 이밖에도 수많은 지도자들은 “우리의 신의를 건” 그 믿음이 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 젊은이들에 위임된

### 신의 다섯 가지

우리의 세습과 우리들 자신에 신의로울 것.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가장 값진 은사는 대개 우리의 노력이라던가 우리의 편의 같은 것에 무관하게 주어 집니다. 삶 그 자체가 벌써 하나의 은사이며 강건한 육체, 건전한 정신 등도 은사인 것입니다. 건강은 재물입

니다. 그런데 흑자는 저 비유가운데의 타락한 아들처럼 이 건강을 어리석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로 말미암습니다. 육체의 건강과 정신적 평화는 바로 행복에 연결됩니다. 우리는 준마를 타고 앉아서 신경질적으로 채찍질하고 고삐를 뒤트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하며 영리하고 귀여운 동물을 못살게 구는 자는 아예 무식하던가 표악한 자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젊은 폐기를 걱정으로 농락하거나, 자기의 양심을 음흉하고 죄로 가득한 행위로 그르치는 자 역시 위에 열거한 사람들과 같다고 하겠읍니다.

힘과 능력은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성스러운 신뢰로서 주어졌읍니다.

때때로 젊은 남녀들은 인기를 위해서 방종까지를 감행합니다. 자기의 건강과 품위를 버려서까지 인기를 모으겠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기를 위해서 유혹에 빠지는 자는 자기의 본위를 지킨 자가 존경을 얻을 때 그만 자기가 소망하던 바로 그것을 상실하고 맙니다.

#### 명예와 가족에의 진실함

우리의 노력이 없이도 우리에게 임하는 신의로 명예가 있습니다. 때문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청춘의 명예를 보존하는 것이 젊은이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젊은이에게 주어진 가장

권고하고 싶은 권언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너의 신의로서 인정은 그 명예를 잘 지키라” 나는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아들로서의 책임감을 절감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래에 기술한 내용의 뜻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너는 너를 참되다고 믿는 너의 이웃에 대하여 진실해야 한다  
너는 결코 네 이웃이 원하지 않는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네가 스스로에게 거짓되었으면 다소는 아픈 마음으로 꾸우치라  
너는 네 이웃을 해친 것이요  
그들 모두에게 거짓되었던 거다

#### 교회와 교회의 평판에 진실하라

셋째번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책임을 느껴야 할 사항은 교회가 늘 훌륭한 명망을 지니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 회원 개개인은 자기의 행동이 전체 회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는 쉽게 오류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품격의 남자와 상냥하고 진실한 여인을 배출시킬 수 있는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끝까지 건디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감화에 민감한 그릇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도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설정한 생활 표준을 충분히 이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표준은 신앙개조 제13항에 훌륭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미 모든 것을 참아왔으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기를 원한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구하여 마지않는다.

#### 국민으로써 조국에 진실하라

우리는 우리가 일하고 이야기 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밖의 다른 일을 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것들을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자유의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일종의 의연한 신의 연대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중에는 외국에 가 본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항구에 정박중인 배의 뚝대에서도 좋고 미풍을 타고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았을 때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감격한 어조로 「내 조국의 국기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방임한 로마인들이 느꼈던, 또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로마 사람된 자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고 자기에게 채찍질하려는 사람에게 반문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으로 전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악 채찍질하려던 사람이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고 말하자,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 : 25—28)

저는 항상 바울이 위와같이 선언하였을 때 억제하기 힘든 만족감을 느꼈으리라 생각하고는 합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한국인으로서의 신의를 저버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의를 조심스럽게 보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과 신앙에 진실하라

다섯번 째의 신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찾고 의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지 결코 그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신하는 것이며 그에 대하여 신념을 갖는 것입니다.

요의 이야기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바람직한 축복을 허여받은 사람에게 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가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자녀들, 풍족한 땅, 가축, 많은 종들이 다 그의 소유였습니다. 세상적인 부가 수중에 있었다고 하겠읍니다. 친구도 많았으며 명성도 대단했읍니다. 그는 인간으로부터는 존경을,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모든 것은 말끔히 걸히어가고 말았읍니다.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의 살육과 방화로 그는 가축과 종을 잃었읍니다. 무서운 폭풍이 그의 귀여운 자녀를 앗아갔읍니다. 자신도 흉한 질병에 걸려 괴로움을 받았읍니다. 그 괴로움의 도는 극에 달하여 그는 생명을 버리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해 주던 부인의 위안마저 들 수 도없게 된 그였읍니다.

그렇지만 욕은 도적, 방화, 폭풍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앗아갈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 바로 그것이었읍니다. 심한 환난중에서도, 소위 그를 「위로하려던 사람들」앞에서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것이라 나의 이 가축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간증은 인생의 가장 큰 은사입니다. 나태에는 것들지 않습니다. 근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정이 아닌 공평한 행동에, 노하지 않는 자제에, 술취함이 아닌 절제에, 방탕이 아닌 순결에, 증오가 아닌 사랑에,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신앙에 깃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하신 예수의 약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7:17)

복음의 원리에 순종하겠다는 확신은 모름지기 어려운 세상에 화평과 행복을 초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때가 결점에 달한 시대에 회복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은 「값진 진주」와도 같이 귀중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신의증 건강의 축복, 영예의 가치,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과 기회, 자기 조국에 대한 특권, 하나님의 존재, 그의 독생자의 성스러운 임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얻기 위한 수단 방법, 기회 등 몇가지만을 열거하여 보았읍니다.

자기 신의를 지키는 가운데 얻어지는 이들 축복과 의무를 이해하면 바울이 갈파한 「네게 부탁한 신의를 지키라」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14—

— 文 答 者 襄 海 —

【질문】 출애굽기 3장 14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이 말씀이 옳다면 하나님께선 피조물이 아니라는 답이 저절로 나오는데 더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시기 이전의 이름인 여호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계시지 않다는 말인가요? 궁금증을 풀고자 영어 성경을 펼쳤더니, "I am that I am."이라고 쓰여져 있더군요.

(부산 동구지부 박문정 형제)

【답】 하나님은 만일성도에게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와는 동일인이라는 점을 밝혀 주셨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전세에 가지셨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 8장 56 절부터 58 절에 보면「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는 말로 이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

절은 예수 자신이 출애굽기 3장 14 절에 설명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계시와 권능을 주신 바로 위대한 그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언자 요셉 스미스는 예수도 모든 인간의 영의 아버지되시는 아버지를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아버지의 이름은 엘로하임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논의할 필요가 없겠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과 에언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점을 인정하셨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예수가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아버지 없는 자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자녀없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무나 식물 어느 것을 예로 들어보아도 어버이되는 나무가 없으니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나 인간, 실로 모든

것은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더 깊게 알기를 원하는 분은 요셉 필딩 스미스께서 지으신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중 369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성도의 벗 구독 광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의 영적인 발전을 기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선물과 정기구독 장려의 방책으로 종전의 1년 구독료 300 원을 250 원으로 인하 하였습니다.

각 지부의 성도의 벗 담당자에게 신청 하시면 국내, 외를 막론하고 우송료는 성도의 벗에서 부담 하겠습니다. 성도의 벗은 여러분의 신앙적인 길 짚이가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31일 까지 정기 구독하신 분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차 송 손 이 진 박 전 손 김 남 심 이 차 삼 지 한 이 주 강 김	부 지 총 태 계 낙 원 관 종 송 문 영 교 속 미 청 영 인 민 덕 춘 동	부 지 환 설 만 연 선 호 철 은 자 진 진 자 례 부 남 상 관 영 봉 길	박 청 황 김 정 흥 유 구 이 이 김 정 서 김 김 이 김 김 용 희 김	중 지 윤 종 상 순 석 중 영 정 정 신 부 석 본 태 사 과 덕 장 인	식 부 섭 호 유 모 재 식 환 순 회 자 부 모 경 문 원 영 병 순 속	박 김 조 성 이 김 장 민 김 최 화 강 차 이 최 박 이 송 신 박 신 정	기 격 규 부 호 중 기 경 동 임 의 순 인 병 우 도 용 책 규 지 존 대	주 중 영 부 남 관 호 옥 두 순 순 애 규 속 천 호 회 원 정 역 관	인 박 대 이 양 대 배 광 박 부 배 안 금 정 동 김 송 김 최 이	천 제 전 구 주 산 영 우 바 상 구 용 재 봉 기 광	지 지 제 지 수 병 지 영 우 바 상 지 용 재 봉 기 광	역 암 역 수 윤 부 열 역 구 부 철 식 을 식 부 일 현 규 덕 흥
---	---	---	---	---	---	---	---	---	---	---------------------------------	-----------------------------------	---

【문제】

1. “아담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2. 휴 비 부라운 이란 분은 누구이며 한국엔 언제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3.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함이었고 인간이 존재함은 즐거움을 얻기 위함이니라”는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힌트】

이제까지의 성도의 벗 퀴즈 출제 경향은 앞서 나온 성도의 벗에서 출제 되었습니다.

【응모요령】

1. 성도의 벗 「제 몇회분 답」이라고 쓰고 해답, 주소, 성명, 소속 지부 명을 명기할 것이며 (인편으로 보낸 것은 무효임) 독후감을 필히 동봉해야 합니다.
2. 해답은 9월 20일까지 성도의 벗 편집실 도착분에 한 합니다.
3. 정해답자는 성도의 벗 10월호에 발표합니다.

☆ 매월 정해답자 5명씩을 추첨하여 3회 당첨자에게 성도의 벗 1년 분을 증정하던 것을 6회문제(8월호)부터는 10명을 추첨하기로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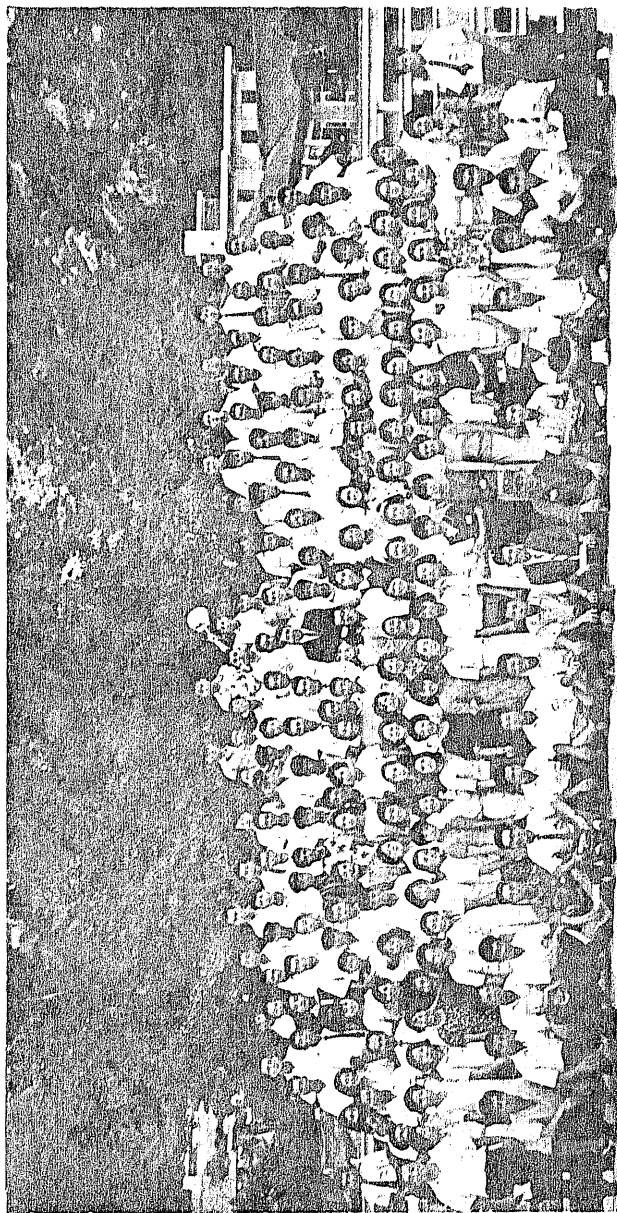
【정답】

1. BC600 년경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리하이는 누구의 후손이었나?  
답, 요셉의 후손
2. 그것은 어느 기록으로 알게 되었는가?  
답, 레이벤의 노트판
3. 그 기록은 어디에서 누가 기록한 것이었나?

답. 니파이가 예루살렘의 레이벤으로 부터 입수 하여 기록.

【정답자】

- 인천지역 이 봉재 형제 (1)
  - 동부지부 이 호희 형제 (1)
  - 동부지부 차 미선 자매 (1)
  - 삼척지부 강 춘봉 형제 (3)
  - 대전지역 양 해운 형제 (1)
- ※ 괄호안의 숫자는 정해답 회수.



청소년 소녀 대회 참가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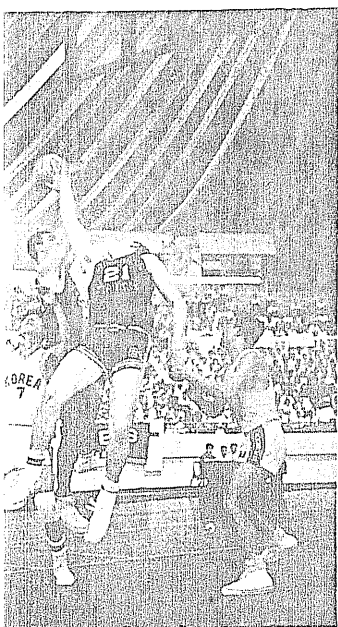


등록을 마친후 숙소를 찾는 캠퍼스



습 남녀 복식의 기복님 선수

장 B.Y.U에 대표팀의 경기



장 선수를 다짐하는 토끼님과 게이님







◁ 찬양대의 연습

경기장으로 향하는  
가미운 발걸음



▷ 휴식음 김한 간담회 (농구장 스탠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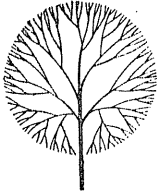
◁ 신교부장 말씀을 듣는 대회참석자

지방부장의 시상



◁ 남부지역 성도들 환송하는 서울성도들

# 靑少年少女大會



池 永 達 記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되어 내가 이를때 까지 읽는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디절 4:12~13)

이러한 바울의 말씀을 주제로 사회악에 물들기 쉬운 연령에 있는 젊은이를 모아 올바른 사상과 태도와 의지를 길러줄수있도록 짜여진 제 1회 한국 청소년소녀대회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동안 한국 선교본부 구내에서 있었다. 청소년소녀 대회가 비록 2박 3일의 짧은 기간이기는 했지만, 이 대회를 통하여 얻은 경험은 참가자 각인의 가슴에 길이 남을 값진 체험으로, 자기 수련과 내일로 향하는 발돋움에 크게 이바지할 디딤돌이되고 또 성장과 전국 각지에 있는 젊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며 지도자의 영적인 말씀을 들으므로써 복음 안에서 더욱 강해지며, 간증을 굳게하고, 교회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도록 힘을 길러 주기 위해 계획된 발전을 계속하는 기쁨진 밀거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 〈대회 준비〉

### 1. 푸로 그램

대회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푸로 그램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으나 우선 대회 일자를 교회 대학교인 미국 부리감 영 대학교 농구팀의 한국 원정일자를 참작하여 8월 3일부터 5일까지 갖기로 일단락 짓고, 장소는 청운동에 있는 선교본부, 참가자 신청마감을 7월 20일로 하고 마감한 달전에 각지부 및 지역에 공문을 보내고 포스타를 보내어 광고하기 시작했다.

### 2. 식사문제

당초 예상했던 인원이 100명정도였으나 의외로 지방의 회원이 증가하여 食口가 200명이 넘게 되었고 계획된 시간내에 식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순서를 진행시키는데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가장 어려웠으나 흥순모 형제와 지

방부 상호부조회에 일임하여 각지부 상호부조회의 협조를 받도록 했고 카로리가 사전에계산 된때 뉴가 작성되었다. 1인당 한끼식사비는 80원 정도로 계획되었다. 식당배정문제는 강당을 사용하려던것을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청운지부 예배당을 사용키로 하고 200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간이식탁을 만들기 위하여 부르크와 베니아판을 구입했다. 또한 200여명이 동시에 식사할수 있도록 접시 200여개를 구입했다.

### 3. 침실

날씨가 더우므로 여유있게 배정하려고 고심했으며 역시 인원이 증가하여 자매들은 청운지부와 선교부의 선교사들침실까지, 빌려서 사용하기에 이르렀었다. 형제들은 청운지부 공과교실과 강당 일부를 사용케 하고 꽃장판과 캔버스를 구입하여 필요한 곳에 깔아 놓았다. 침구는 각기참가자들이 가져오도록 하였으나 우리대로 이불을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각 방에 거울을 비치했다

### 4. 목욕 시설

높은 지대이어서 물사정이 좋지 않았었고 또 모든 인원이 같은 시간에 사용하게 됨으로 여러가지로 생각한 나머지 요소요소에 임시 목욕실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8군에서 야전용 샤워를 빌려보기로 했으나 뜻대로 되지않아 빈 드럼통을

150개빌려 칠을 하고 3개 소에 비치하였으며 대야 20개를 구입해서 함께 비치했다.

### 5. 의약품

침식을 같이하는 단체 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병에 대비하여 대회 총본부내에 의료반을 두고 전담 치료케 하였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후송할수 있도록 차를 5대를 대기시켰고 치료를 위해 송태섭 형제와 연락을 가졌다.

### 6. 교통

서울역에 도착한 지방회원들이 본부까지 산발적으로 오게될 시간을 절약하고 시간내에 등록을 마치게 하며 장충체육관으로 농구경기를 참관하러 갈때 단체 입장을 편의를 위해 미리 8군버스 6대를 예약해 두었다.

### 7. 안내 표시물

참가자 환영 플래카드와 포스타, 시설물 안내도 대회 참가자를 식별하기 위한 명찰, 식당과 침실의 개인명패, 각 운동팀의 응원단 표시판, 안전 포스타 등등이 준비되었다.

### 서울 역으로

청소년소녀대회는 지방회원들을 서울역으로 마중나감으로 시작해서 환송하는 데



서 끝났다.

8월 3일 오후 2시 필마 선교부장을 비롯해서 지방부장단과 지방부 상호향상회 직원들이 출영을 나갔었다. 비록 여름의 소나기가 마구 옷깃을 적셔 서로 정다운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미리 대기 시킨 8군 버스 안으로 물리긴 하였으나 청소년소녀 대회에 참가하려고 멀리 부산과 대구에서 상경한 성도들의 마음은 마냥부풀이줄 겨운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광주회원들의 상경시간은 4시 이므로 먼저 도착한 부산, 대구, 회원들만 세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도착등록을 하기 위해 본부로 향하였다.

### 대회 제 1일

마치 큰 잔치날을 연상케 하는 대회 첫날이었다. 등록을 마친 참가자들은 지방부역원의 안내로 2박 3일을 지낼 각자의 침실로 가서 여장을 풀고 대구교회식에 임하였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봉창으로 시작된 개회식에선 선교부장단을 대표한 이호남형제의 환영인사가 있었고 지방부 평의원인 김상호 형제로부터 대회기간중 지켜야할 준수사항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BYU 농구팀의 코치인 스텐완산형제의 말씀이 있었다.

대회를 맞아 처음 대하는 저녁식사는 대구지부 김상헌 형제의 축복으로 시작되었으며 함박스테이크 식욕을 돋구어 주었다. 저녁식사후에는 저마다 지닌 재주를 겨루는 “재능의 밤”이 강당에서 열렸다. 이모임은 서로 터놓지 못한 벽을 털어버리기에 알맞았고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상경한 성도들의 여행으로 지친 몸은 지부의 재능발표를 위해 동분서주 했었다.

각지부 및 지역에서 10분씩 준비한 노래와 춤과 악기연주와 코메디가 박수갈채 속에 진행되었으며 심사결과 부산동구지부의 “월남가는 꿀벌장군”이 뛰어난 준비를 최우수로 뽑혔다. 특히 찬조출현한 함킨스장로의 노래와 피터슨장로의 무언극은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다같이 부른소창시간에는 북치는 소년과 다시 만날때를다같이 불렀다. 이날의 행운상은 팔말자매님에 의해서 대구의 천종택형제 차종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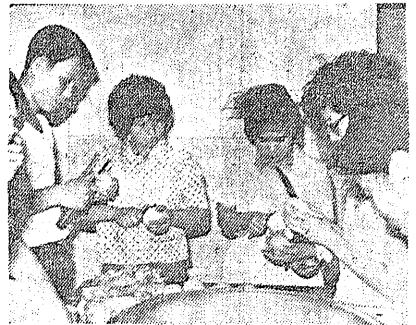


사진 : 음식준비에 바쁜 상호부조회 자매와 조력자

제에 의해서 최창숙 자매가 각각 추천되었다.

노변의 모임은 예정대로 농구장 주변에서 가졌고, 기후관계로 모닥불은 피우지 못했으나 차종환 지방부장의 개척자에 관한 말씀과 다같이 부른성도들 아두려 울 것 없다. 의 찬송은 참가자들의 기억에 길이 남으리라,

첫날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기전에, 무사했던 하루를 조용히 감사드리는데 회회모임이 “이제 날 저물어”를 부르면서 시작되었고 서부지부인술자로 참석한 최영장자인 김도필 자매의 영적인 말씀에 이어



동부지부 김우일 형제가 기도하므로써 첫 날이 끝났다.

## 대회 제 2일

아침 6시 30분에 기상하여 농구장에 모인 성도들은 북악산과 인왕산사이로 흐르는 아침의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개회의 도입을 가졌다. “오 사랑스러운 아침”을 다같이 부르고 성북지부 인솔자 민경옥 형제의 영적인 말씀을 들었고 부산지부의 손진기 형제가 기도하였다.

아침식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각자 희망대로 합창 연습과 음악감상을 하였다. 합창연습은 마지막 날의 특별 모임에서부를 준비를 하는것이고 음악감상은 합창연습을 하지않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모임이었다. 80여명이 참석한 합창연습은 정대판형제가 지휘를 맡았고 민영탄 자매가 반주하였다.

응변대회는 강당에서 열렸으며, 삼청, 동구, 서부, 청운, 대구, 등 5개지부에서 연사들이 출전하여 복음 안에서의 생활을 부르짖는 열변으로 사자후를 토했고 삼청지부의 강석훈 형제와 동구지부 박태옥형제가 각축전을 벌였으나 부산동구지부의 우승으로 돌아갔다.

10시 30분부터 배구장에서는 제 1코트와 제 2코트에서 각각 배구에선이 있었으며 각지부회원들이 고루섞여 조직된 거북팀, 토끼팀, 꿀벌팀, 개미팀의 선수들이 각각 참가하여 열띤 응원과 함께 8월의 피약벌 아래 열전을 벌였으며 오후에 있었던 토끼팀대 개미팀의 결승은 글자 그대로 썩소개임을 벌여 보기드물게 흥미진진한 경기를 보여 주었고 각지부 회원으로 혼합 편성된 선수들이었지만 훌륭한

한 팀웍을 보여주었다. 오후에 있었던 탁구대회도 보논이의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 여자 단식에서는 개미팀 소속인 부산 동구 지부 한옥희의 자매가 우승하였고남자 개인전은 꿀벌팀 소속인 부산지부의 안우식 형제가 우승하였다. 남녀 혼성복식에서는 거북팀 대개미팀의 경기에서 개미팀을 2:1로 눌러, 성북지부의 민신홍형제와 부산 동구지부의 정자혜자매의 거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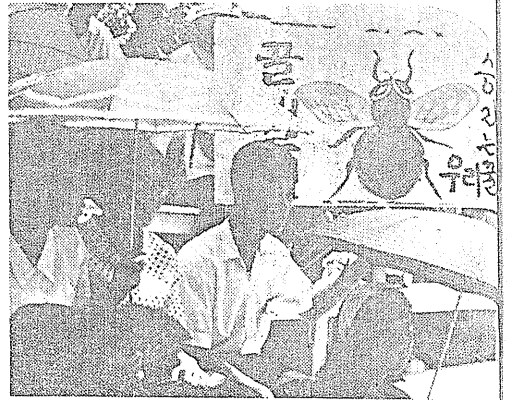


사진 : 꿀벌팀의 응원단원들

팀이 승리를 거두었다. 탁구 경기를 시작하기전에 무대에서 보여준 대구지부 형제들의 “헤비급 레슬링”쇼와 중계방송은 실감나는 명연기로 박수갈채를 받았고 광주 지역에서 온 정병문형제의 요가법 시범과 태권도 시범은 이색적인 것이였었다.

저녁식사를 마친후 네대의 8군베스에 분승하여 기대하던 농구경기를 참관하기 위해 강충체육관으로 갔다. 경기는 한국대표팀과 BYU 농구팀과의 제 2차전이였다. 제 1차전에서 코베를 마신 BYU는 설욕하기”위해 분투하였고, 대표팀은 국가의 명예를 위하여 분전하였으므로 로시중

흥미있는 경기였다.

밤 9시 노래를 부르며 본부로 돌아온 성도들은 폐회를 하고 대회의 마지막 밤을 맞이 하였다.

### 대회 최종일

다른날 보다 한시간 일찍 5시 30분에 기상한 참가자들은 잠자리와 실내의를 청소하고 성찬식 및 간증회에 임하였다. 그동안 함께 운동하며 노래하고 즐거운 대

회를 나누어 가는 가운데 신앙의 간증은 더욱 영결어 겹음이 간증회에서 나타났다가 서로 앞서 일어나서 간증하는 모습,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살아가게심을 증거하고 형제 자매로써의 사랑과 교회의 참됨을 어린 입으로 간증할때 몇번인가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 이날간 증자는 57명이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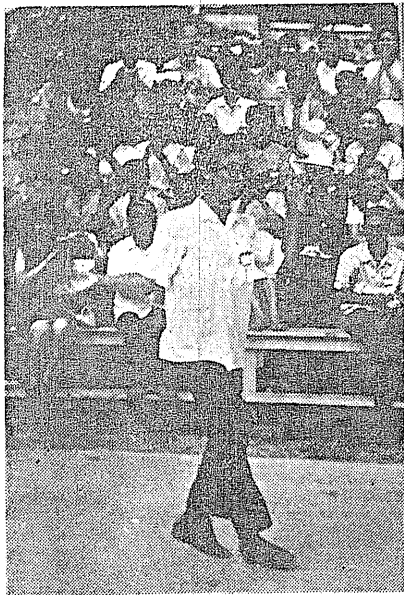
아침식사를 마친후에 강당에서 열린 특별모임은 간증회에서 굳어진 마음에 알찬 생기를 더해 주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사진 :

上 : 한국일보사앞의 브리감양 대학 농구팀

下 : 개미팀의, 응원단장 유중현형제의 열띤모습



결정에 치달는듯 연속되는 감화에 머리가 잠시 무거워짐을 느꼈다. 이순애자매, 팔마자매 이호남 형제의 훌륭한 고무적인말씀과 그야말로 감탄사를 연발할만큼 정리된 합창 그리고 팔마부장님의 영감에 의한 말씀 즉 젊은이에게 필요한 목표로써 성공을 위한 아홉가지사 항을 명심하도록 하나하나 일깨워 주신것은 크게 감동을주었으며 특히 이나라 이땅의 어려움과 젊은이의 앞길을 축복해주신 기도는 박수갈채이 상의공 감사과 감사의 念을 불어 일으켰다. 이 모임에 참석하여 이말씀을귀담아들은 사람들은 이번대회에서 얻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보람을 느꼈으

리라.

### 폐회식

2박 3일의 대활동을 끝맺은 대회폐회식이 강당에서 열렸다.

선교부장단을 대표한 이호남 형제의 석별인 사yai 어시장이 있었다.

행운상, 재능발표 최우수상과 웅변우승 그리고 탁구와 배구 우승팀에 상품과 상장이 전해졌다, 아울러 종합성적 제 1위로 부산동구지부에 단체상이 시상되었고 대구 중앙지부 배수열 지부장에게 감사장이, 부산지부와 광주지역엔 장려상이 각각 수여되었다. 시상이 끝나자 지방부역원에 의해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 타일이 각각 전달되었다. 부푸른 가슴마다 성도된 보람으로 벽차삼의 의의를 되느낀듯, 발랄한 젊음의 솟구치는 의욕을 한손에 모아 굳게 악수를 나누면서 주고받는 작은 선물속엔 길이남을 따뜻한 사랑의 정이 깃들여 있었다.

이어서 조용히 울려 퍼진 이별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을 그간에 대한 형제애로 해서 눈물을 글썽였다.

사랑스런 추억들은 되살아오고  
남겨놓은 발자취는 회미해지리니  
어느덧 가버린 시간을 찾아  
벽찬 마음 달리며 석별 고하네

블러보낸 언덕위의 벼들피리는  
달이새어 오늘에는 눈물이라네  
하나님의 사랑속에 맺은이정을  
다시한번 찾고져 이 노래 부르네

### 아쉬움을 안고

떠나는 마음과 보내는 마음은 서울역폭랫트 홈에서 다시금 내년을 약속하고 마음껏 마음껏 손을 흔들었다. 필경 부산과 대구와 광주와 전주로 떠나간 성도들은 지난 3일간의 뜻깊은 체험을 하나하나차창에 되새기며 고향으로 돌아갔으리라.

### 총결산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인원은 남자 106명 여자 86명 도합 192명이었으며 지방부상향회 역원 9명과 본부요원 2명을 합하면 203명이었다. 식사준비에 동원된 연인원은 약 90여명이 된다.

대회의 참가자중 과반수 이상을 남부지역에서 차지하고 있어 처음에 뜻했더라,

### 대회 참가자 신원별수

장로	제사	교사	집사	회원	남자	여자	계
10	14	24	23	14	21		106

연령별 (통계 고령자는 각지부 인솔자들이었다.)

16세 미만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16	19	24	20	23	11	18	12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35세
7	7	8	2	6	4	4	3
36~40세		41~50세		62세		계	
3		4		1		182	

출신지부(또는 지역)별

지부(지역)	남 자	여 자	계
영 등 포	2	0	2
신 촌	2	5	7
인 천	0	1	1
성 북	2	5	7
삼 청	4	2	6
동 구	19	11	30
부 산	15	15	30
청 운	6	11	17
동 부	4	10	14
서 부	7	10	17
광 주	10	3	13
전 주	1	1	2
대 구	34	12	46
계	106	86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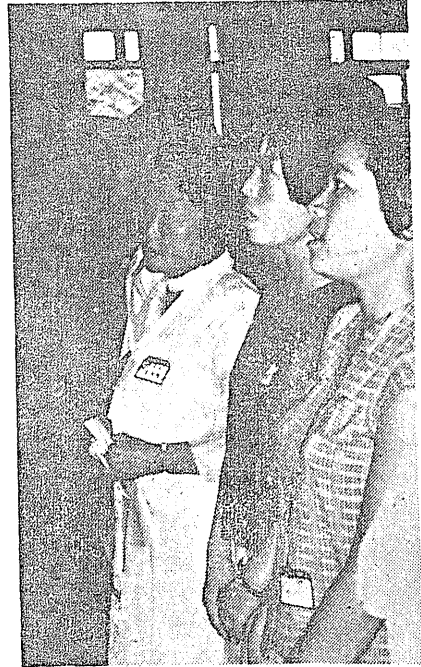


사진 : 폐회노래를 하는 참석자들

으로 전참가자의 5/1이 되었음은 큰 수라고 하겠으나 훌륭한 경험으로 신앙을 키워 이 번대회를 통해 침례받으려는 충동을 더욱 느꼈으리라고 본다. 전체적으로 남자가 더 많은것은 장래의 교회지도자를 양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이번 대회는 막대한 경비를 들였으며 많은 인원이 준비에 동원되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던 만큼 참가자들이 저마다 배운바는 다르겠지만, 이번대회를 통해 얻은 바가 길이 길이 모든 사람의 생활에서 빛을 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게까지 훌륭한 영향력을 주어 주안에서 발견하고 강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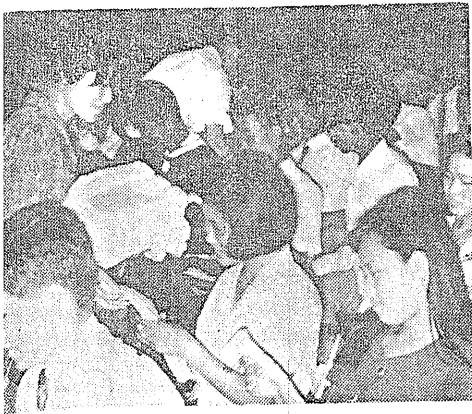


사진 : 선물을 주고받는 상향회 역원과 참석자

성도들을 서로 사귀게 했던 뜻은 이루어졌으리라 또한 구도자가 남녀 모두 39명

# 젊은이에게 必要한 目標

- .....예수의 복음을 전파한 기회를 잃게된.....
- .....아들을 갖게된다면 나는 실망 하리라.....

襄 一 文

편집자주 : 이 원고는 8월 5일 「청 소년 소녀 대회의 영적인 모임」에서 말씀하신 선교부장님의 연설 全文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교회 안에서 탄생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아무도 안계시군요.

여러분은 자기가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교회가 이땅에서 연소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 전까지도 서로 다른 가족의 일원이었고, 집단의 일원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으로 모아 주시고 자녀로 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몇 분 전만 해도 서로가 낯설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 세계로 통하는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로 단합 되었으며 여러분은 가정, 경제, 학교등의 이유로 모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회복 되었다는 이유로 자리를 같이한 것 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며 여러분은 왜 이자

리에 와 계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었나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입니다만 나이를 80이나 먹은 것이 생각 되는 저도 아직도 성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 나이는 더욱 심했던 만큼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손을 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방법을 아는 분은 몇분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 하고자 원한다면 여러분은 출발을 바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실제의 연령과 교회 연령이 적은 까닭에 제가 드리는 말씀만 잘 들으면 성공은 쉽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공의 첫 단계는 근본적인 동기가 확실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입니다.

저는 올림픽 경기에 참관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쟁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기전에 무척 굳은 집념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았으나 커다란 목표를 위해서 아주 크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성공하는가를 볼 수 있고 시시하게 시작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가 관찰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마서 32 장에 보면 “여러분은 깨어서 여러분의 기능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여러분의 기능을 사실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요구가 여러분 뜻안에서 자라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때까지 매일같이 연마해야겠습니다.

또한 목표와 이상을 설정해야 할 것 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세워놓은 목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는 무엇을 하기 원하며, 올해의 목표는 무엇이며, 앞으로 20년 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목표를 성결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목표를 설정하되 주위 환경이나 사상에 휘몰리지 말고 목표를 놓고 높은 곳에 두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뤄야겠습니다.

스펜서·킴벌이 말씀하신 가운데 아직도 기억되는 말씀이 있는데 “별을 향해서 화살을 당겨라! 그러면 근처의 높은 산에는 떨어 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최종, 울곡, 김유신이 되고자,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되 그보다 더 훌륭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교회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말일성도 중에 세계로 진출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려야 했으며 이제야 비로소 시장도 나오고, 대통령후보도 나오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표와 이상을 높이 굳건히 설정하되 여러분은 쉽게 이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결코 추종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 얘기는 같은 책을 펼쳐보고,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고, '기도 내용'을

되풀이 하고, 의식을 애기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공부하고 익혀서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그것에 자기를 적용시키고, 여러분이 순화 되어가도록 애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계시가 적힌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와 성경의 말씀을 진실로 열심히 공부 할 것을 젊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젊은 말일성도들에게 필요한 열 개의 이상을 전해 드립니다. 이 열 개를 잊지 않을 때 여러분은 모두 성공 할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칙을 공부하고, 이해하며, 영원을 토대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은 어떻게 순종하느냐를 배우는 것입니다.

미숙하고 지극히 부족한 몇몇 교회의 젊은이들은 자기가 지도자로 임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순종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결단코 지도자가 되지는 못함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뜻을 쫓는 길을 몰랐다면 절대로 세상의 구세주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밝혔으니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는 그난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므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요소 가운데는 상호향상회, 상호부조회의 집회 참석도 포함되며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던 간에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둘째, 부모를 존경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상에 가능케한 분들의 뜻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계명이 밝혀준바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의로운 가운데서 존경해야 한다는 것은 계명이 밝혀준바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구를 초월해서 조직된 이 교회는 가족의 단위가 영원한 기구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셋째, 저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교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교사가 되도록 준비하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아들을 기르되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잃게될 그런 아들을 기른다면 저는 무척 상심할 것입니다.

이 자리의 젊은 형제들께 말씀드리노니 여러분은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씩 저축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름이 왔을 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께서는 교회의 모든 성도는

선교사라고 했으니 자매님 여러분도 지금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긴박한 때라고 생각하시고 친구를 불러 들이고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책자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러분이 앞 길을 인도해 가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날입니다. 나머지 인생의 첫발을 딛는 날이라고 누군가가 얘기 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바로 그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있어서 우리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란 속담처럼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허가하신 높은 뜻을 갖지고 일을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앞에 설정된 우주의 질서를 파악하고 이념을 똑바로 세우고 우리가 처한 시대를 이해하고 그리고 한국적인 모든 것을 이해한후 그것을 기초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룰 때 여러분은 목표로 가까이 갈수 있는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며 그 계획에 의해 생활할것이며 다른 것으로 접어들어서는 안됩니다.

다섯째, 팔마 자매도 언급한 바 처럼 교회안에서 높은 이상으로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에게 얽매인 여러분의 여생을 가지고 만

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한국적인 상황,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세로 간구하면 가능하다 하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밖에서 결혼하면 자신은 물론 자녀들도 믿지 않는가운데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세세한 사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같은 기회가 서로를 알고 혹은 서로를 알게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혹은 서로의 높은 이념을 교환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혹은 서로의 높은 이념을 교환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차 어느 날엔가는 물론문의 결혼식을 갖게되는 온전한 축복을 받게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 결혼을 하고 영원한 부부로 임봉될 날이 닳아 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교회 밖에서 결혼함으로 그 기회를 상실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째,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할수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그대로 지속하고 준비시켜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록 사망과 절고 가 끊는 이세상에 태어나기는 했습니

다마는 만약 우리가 쫓아서 지키고 생활하기만 하면 우리 원래의 상태로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꼭 지켜주십시오. 정대판 형제가 착수하고 있는 역의변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이 읽게 되실 교리와 성약 88 장에 있는 그밖의 많은 건강의 법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늘 계속해서 일을 추구하는 지치지 않고 일하는 버릇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차이라고 하면 과연 무엇이냐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근본적 차이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행하심에 있어서 빈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계속하시며 영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곧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존경이 되도록 여러분의 명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험프러 부통령이 내한 했을때 나는 그분과 간단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내가 개인비서를 쓸때는 꼭 물론중에서 선택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사람이 물론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기를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처에게 직접 물어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여 얼마후에 기회가 와서 부인과 얘기할 때 “당신은

왜 비서로서 물론만을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더니 “나는 물론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물론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면 꼭 그것을 해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며 어떤 성취해야 될 일이 있어서 부탁을 하면, 부탁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맥주홀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방에 가 있는것도 아니며 이루워져야 될 일에 대해서 집념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 주십시오.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번 주 일에는 몇시 몇시에 일어나서 주일학교에 참석 하고 상호 향사회에 참석한 다음 이 다음 주일에는 내가 조금 휴가를 얻으니까 그 다음 주일에 다시 돌아와서 활동적으로 일을 하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미국 사람은 대개의 경우 휴가 기간중에 게을러 지기 마련인데 몇몇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휴가를 얻으면 “자 이제 내가 교회를 떠났으니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 “군대에 가 있으니 교회에 나가겠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먼테에 있으니 그 사람들과 더불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일성도의 젊은이들은 늘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는 생활의 상태를

버릇처럼 길러야 하는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피아노를 치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 와야하고, “내가 그 자리에 와서 안내를 맡겠습니다” 혹은 “내가 그 자리에 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밖의 어떤 것이든 간에 약속을 하면 충분히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지속해가는 지구력과 변하지 않는 이러한 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만약 제가 여러분의 연령에 있다고 한다면 나의 백성과 나의 민족을 축복한다고 하는 사항을 나의 목표의 사항에 포함 시키지 않고서는 내가 정말로 성공했다 하는 신념을 갖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와 같이 어려운 환란의 지경에 처해있고, 특별히 뛰어난 여러분들만으로서 혹은 특별히 뛰어난 여러분만이 환란에 처한 여러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제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말일성도의 젊은이들에게 이제 마야흐로 움직이게 된 한국이라는 커다란 기계에다가 정신적이고 이지적인 양식과 봉사를 불어넣을 준비를 하라고 권고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사실 그렇게 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고조된 그리고 강조된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정신적인 사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복음의 횃불을 밝혀 들어서 이 민족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게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면을 맡아서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아홉번째 사항으로 성령의 안내를 필요로 해야 할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의지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커다란 영의 빛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전달되고 계시되는 하나님의 높은 뜻과 빛을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열번째 마지막 사항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의 최고의 해의 영광과 성령을 여러분의 성공의 목표가운데 설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왕국에 가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가 계신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고 승영되어서 복을 받는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물몬이 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은 복음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신 최고의 해의 영광인 승영의 생활에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고 충

실해야 합니다. 저는 훌륭한 나라 대한민국이 이 교회 안에서 크는 젊은이들로 인해서 긍지와 자랑을 느낍니다. 저는 이곳에 와있는 모든 젊은이들의 어둠과 위협에 쌓인 이 나라를 빛과 온전한 상태로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능력과 성품과 재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변명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환란가운데서 탄생했고 또 그러한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도 도와주시리라 신념을 갖고 일하는 가운데 빛과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공부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항을 실제로 생활해 주시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저는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여러분이 저의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되고 같이 믿음을 따르게 될수 있었다

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깨우쳐 드립니다. 여러분을 자랑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젊은이 가운데서 뽑힌 이곳에 있는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성도를 우리는 다른 곳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단결해서 여러분 개개인이 갖은 자존심을 물어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들이 가이 달성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의 가정에 능력과 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참으로 세상에 나가 소금의 직분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젊은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젊은 남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말세에 존경과 영예로운 신앙을 갖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  
렸습니다. 아멘

### 늘 함께 합소서

늘 함께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

주님 음성처럼 친절함 또 없아오니

늘 함께 하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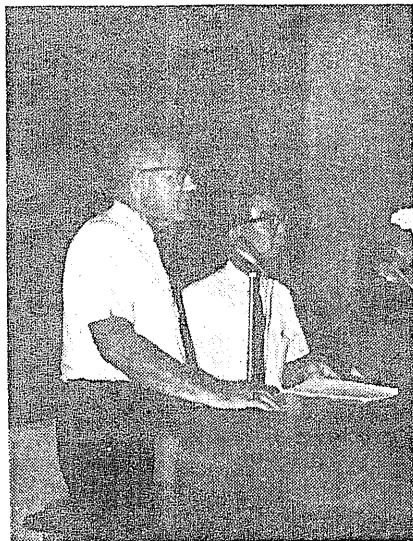
계시지 않으면 내 생애 헛되오니

언제나 나의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오! 주께 나가오니 복 주옵소서

# 信仰 안에서 생활을

스텐·왓스



젊은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는데, 이처럼 훌륭한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심을 감사 합니다. 이 자리에서 차중환 형제님, 이 호남 형제님, 팔마 자매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집을 떠나서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은 무척 반가운 것입니다. 의로워하는 저희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체한 이래의 성도들의 친절을 감사하며, 김포 공항에서의 회원들의 환영은 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약 2년전에, 50여일을 남미에 원정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교회의 회원을 만났는데 지금처럼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갖은 이제까지의 체험으로 이 교회야말로 말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간증 합니다.

직업이어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때문인것 같습니다만, 오늘도 농구 얘기를 조금 하였습니다. 어떤 경기에서 제임스라는 선수는 7번이나 공을 바스켓에 넣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한번도 넣지를 못하자 당황한 코치는 “당황하지 말고 넣어보라”고 했더니 이 말을 들은 선수는 화를 벌떡 내면서 “당신은 신앙이 없소”라며 대들더랍니다. 이에 코치가 말할 길 “신앙이 있구말구. 허지만, 당면한 것 부터 해결하자. 넌 신앙이 있느냐고 내게 물었는데, 신앙을 갖고서도 7번이나 실수를 하니 교회체면은 뭐

가 되니”라 했더니, 선수의 말이 “나도 교회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위해 애쓰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하며,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조하는 여러분은 분명히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것입니다. 늘 희망에 차있고, 깨끗한 모습은 인상적인 것이어서, 한국의 체육계 인사들이 자기를 회생 하면서 수고를 하고 있는 분들과, 독립을 위해 애써왔던 여러분의 나라에 존경을 표합니다.

토인비 교수는 그의 6권의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는 내용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일 역시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사사롭게 이야기를 주고 받는 자리에서 팔마 형계께서 한국의 교육 열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나는 무척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무척 중요시 해야하며, 우리 교회는 학교 교육으로 부터 시작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선조는 어느 곳에 정주하게 되면 교회와 함께 학교 건물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교육과 교회의 교육은 우리의 영을 구한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교회의 조직에서 봉사하며 경험을 얻는 것은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이것의 발전은 신앙과 간증의 발전이며 교회의 발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진실한 친구를 소개할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친구

가 없으면 얼마나 삭막 하겠습니까? 이번 대회에서 여러분은 진실한 친구를 사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대로 건강에 힘써야 겠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유럽의 젊은 이들에 비해서 건강히 훨씬 낫다고 하는데, 그것은 충분한 물질로 인한 운동부족에서 오는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의 법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관심을 갖고 본 사람이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멸망되기 시작 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건강과 정신이 차차 퇴폐해져서 나중에는 몇 백년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훌륭한 회원이며 친구이기 위해서는 육체적이며 정신적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릇 될때 그들은 우리 교회를 욕할것입니다.

일년전 뉴욕에서는 전 미국 대학 선수권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경기 도중 상대 선수와 B. Y. U. 선수가 함께 쓸어졌을때, 경기에 불리했던 B. Y. U. 선수가 먼저 일어나서 그를 일으켜 주었을때, (그때까지 결승전에서 그런 우호적인 행동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많은 관중은 그의 친절에 성원을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경기 후 그들을 만나기 위해 운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조그마한 예 입니다만, 인생에 있어서 남을 도와주게되면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건 남을 도와 주려고 애써 주십시오. 그리



고 남을 도와주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회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협동을 필요로 한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신앙과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된 날 만이 아닌 매일 매일이 기도에 필요 합니다. 신앙에 대한 용기를 갖추시다. “나는 말일 성도”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쓰련 우주인가가린이 미국을 방문했을때 그는 “하나님이 우주선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 높은 하늘을 나르면서 보지도 못했으니 하나님은 없습니다”고 말했다를 때, 미국의 우주인 쿠퍼는 “나는 캡슐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했으며, 비행인이 된 사명을 감사하며, 과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가정을 갖을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나라를 다닐때 마다 교회의 기초와 힘은 청소년에게 있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발전될 때 여러분의 사회와 교회는 크게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노력 만큼 발전함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 스텐 왓쓰 형제님은 현재 B.Y.U. 농구팀의 코치로서 29년간의 코치 경력을 쌓은 분입니다. 그의 농구에 대한 저서는 미국에서 체육서적의 제일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4명의 자녀를 갖고 있는 그는, 교회에서 평의원 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오 높은 영광보좌

오 높은 영광보좌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내 언제나 다시 돌아가 아버지 얼굴 뵈오리까?  
거룩하여라 당신의 처소 내영이 함께 거하던 곳  
귀하여라 당신의 슬하 내 영이 처음 컸던곳.

당신이 이 몸 여기에 놓은 현명한 목적 아나이다  
출생과 친구 모든 전생일 완전히 잊었을지라도  
은은히 주는 당신의 말씀 나의 거할곳 천국이니  
나 이 세상에 잠깐 온 손님 이제 내가 아나이다.



〈웅변 입선 원고〉

## 우리의 임무는 믿음이다

박 태 욱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다운 것을 참으로 알고, 모든 궁지에서 벗어날려는 인간 세상의 가냘픈에서, 사랑과 기쁨만을 찾으려고, 이 전당에 모이신 형제 자매님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이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여 무엇이 성취될 것인가를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인간들은 무슨 일이든지 성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두워 드

릴 것을 예기치 않는 농부는 없으며 거주할 것을 기대치 않고 집을 짓는 사람없으며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희망없이 여행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모든 궁극적 결과에 대하여 성취하려하는 모든 것을 믿는 신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 신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신념으로서 하루 하루의 역사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답을 기억 하실 것 입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 : 22 : 36~39)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속세에서는 아름다움, 부귀영화, 환락등 많은 것들이 인간들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은 아름다움, 부귀, 영화, 환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만이 합당한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길 거리를 다니면서 가정에서 길 거리에서 형제간의 싸움, 부부간의 싸움, 동족간의 싸움등 많은 싸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믿지 않는 가운데 일어나는 투쟁입니다. 과연 그 이웃을 사랑하려며는 그 이웃을 믿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믿지 않는다면 불안, 비판, 괴로움등 인간의 약점은 두 말 할 필

요없이 나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말일 성도들은 형제며 자매며 위대한 과업을 성취시켜야 할 하나님의 아들 딸 들입니다. 거룩하고 엄숙하고 영원한 이 전당에서 서로 험뜯고 싸움만이 계속된다면 이 영원한 시온은 어디에 설 것이며 우리가 얻을 영생은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아울러 인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에는 괴로움, 불안감, 죄지움이 없고 항상 깨끗하고 축복이 넘치는 순결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을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에는 서로 주저함이 없고, 건전한 가운데 행해지며 기쁨과 즐거움이 샘 솟듯이 넘칠 것이며 참 영생은 찬란한 빛을 나타낼 것입니다.

저기 저 영생을 가져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기, 저 영생의 빛을 잡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움 영생의 길로 달음질 칩시다.

(부산 동구 저부)

■ 승자가 되고도 뽐내지 않고, 외로운 패자가 되고도 자기의 약점을 관찰 할 수 있는 용기를 기릅니다.

## 관 점

—청소년 소녀 대회를 돌아보며—

—팔마 자매—

여러분은 관점을 지가고있읍니다 그 관점의 폭이 넓습니까, 아니면 좁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관점의 선이 선명합니까, 아니면 불투명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는가요? 현재의 관점은 과거의 그것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미래의 관점은 현재의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인생이란 모든 것이 조화되어 형성됩니다. 인간이란 자기 나름의 경험, 사고, 행동의 결과, 부모의 가르침, 읽는 책, 교사의 영향, 나가서는 친근한 친구의 개성등의 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래의 관점이 현재의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인 이상, 우리들이 일상 생활을 선택하는 태도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교회는 그 울타리 속에 속한 회원을 선택형의 인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들 인간이 매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선명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관점은 자기가 관계하는 범위와 변화시키겠다는 의도 여하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입니다. 좋은 예를 모세와 에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하고 영광에 찬시현을 통하여 지상의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 눈을 들어 저가 지음을 받은 이세상을 보았더라 모세가 보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끝과 지음을 받고 또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의 자녀가 있어 이 일을 심히 놀라며 기이히 여겼더라」 (모세서 1:8)

이러한 시현에 힘입은 모세의 이해는 눈에 보이게 늘어났으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본성과 계획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 중 가장 위대한 분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계시된 같은 모세서에는 다른 예언자 에녹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고 주께서는 내 얼굴에서 계시며 사람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하듯 나와 말



숨하시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여러 세대 동안의 세상을 보여주리라 하시니라」(모세서 7:4)

「주께서 에녹에게 이르시되 네 이 형제들을 보라 저들은 내 손의 숨끼니 내가 저들을 만드는 날에 저들에게 지식을 주었고 에덴 동안에서 내가 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도다.」

(모세서 7:32)

일부만을 이곳에 인용하였지만 하나님과의 오랜 대화에서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주님의 재림시까지의 인간 가족에 대한 것을 전부 보았으며 예수의 화평스런 천년간의 통치에 대한 것도 보았습니다. 에녹이 감동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그의 지혜는 굉장하여 이후의 모든 생을 의롭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에녹과 그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는 시온의 한 가운데 거하였더라 때가 지남에 시온이 없어졌나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품으로 받아드리셨음이라 이로써 시온이 도망하였다 하는 말이 세상에 퍼졌더라.」

(모세서 7:69)

예언자란 하늘과의 접촉여화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을 나는 뒤의 에녹과 모세는 영적인 분들이었습니다.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의 우리들은 전부 예언자도 아니며 또 실제로 그렇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선한 것들을 추구하여야만 합니다. 아름답고 선한 것을 찾기 위하여 이 곳에 온 것입니다. 모든 악을 극복하여 세상 밖으로 몰아내려고 지상에 온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자기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고 질문한다면,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학문으로 뛰어난 사람을 델 것입니다. 사귀어 접촉을 갖는다는 사실이 사람을 아는데, 개성의 발전을 꾀하는데, 그리고 인생관을 정하는데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속세를 버린 사람이나 승려들은 한정된 범위에만 급급하며, 그들의 사고방향은 내향이며 국한되어 있으며 목적이 희미합니다. 바쁜 세상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물론 교회의 교리는 협소하거나 내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살아서 활동하며 발전을 영원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젊은이를 위한 순서가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가져 성공을 거둔 바 있는 청소년소녀 대회는 한국의 말일 성도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교회 교리의 “활동적”인 부분의 일면이 었다고 하겠읍니다. 그것을 회고하여보면 청소년소녀 대회의 목적과 성과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1) 친구를 선택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들은 친구의 특성이라는 그림자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남자나 여자와 친구가 되는 것 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협동, 언어가 깨끗하며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나쁜 습관을 멀리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영적이며 재능이 있으며 교육을 받았으며 행복한 남자와 여자, 자기의 나갈 바를 확실히 정한 남자와 여자를 사귀는 일이 얼마나 뜻깊은 일이겠습니까?

### 2) 재능을 거름

우리들은 자신의 재능이나 성공여부를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내의 젊은이들은 연단에서, 농구장에서, 무

대에서, 크고 작은 합창단의 일원으로 노래하면서, 노력하는 가운데 자신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 3) 승자와 패자

인격이나 용기의 발로는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므로 생기는 것입니다. 승자가 되고도 뽐내지 않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승리한 사람을 에워싼 관중의 갈채가 승리자에게 빛발칠 때 외로운 패자의 위치를 지키는 냉정도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에는 더 훌륭하게 힘써 해보겠다는 의지도 용기의 소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판단하여 자기의 약점이 무엇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가를 찾다른 사람의 방법을 조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하겠읍니다.

「개성은 인생의 흐름과 더불어 발전한다.」(작자미상) 승리나 패배에는 다 제나름의 유익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 4) 지도자란 누구입니까?

이번의 청소년소녀 대회는 지부장 부부가 봉사하게 하고 가르치려고 애쓰는 그 젊은 이들의 상태를 비록 짧기는 하였지만 3일간에 비교적 깊은 면에 이르기까지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고 믿읍니다. 건교한 우정의 결속, 일생의 지표가 되고 방향의 역할을 해주는 결속은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일꾼들은 곧 여러 사람 중에 두드러지게 마련입니다. 영적인 상호향상회 역원들은 출선수범하여 많은 젊은 이들의 좋은 표본이 되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5) 봉사를 통한 향상

모든 사람이 다 놀 수는 없습니다. 그 중 몇 사람은 일해야만 합니다. 자동이 아닌 시계를 내버려 두면 서고 맙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 뒤에는 힘, 동력이 있습니다. 팔과 다리는 피로하였어도 마음은 봉사의 념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막 뒤에서 열성적으로 일한 사람에게도 보상은 꼭 있습니다.

#### 6) 세부적인 계획 및 진행

이번 청소년소녀대회를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이끈 역원들은 그들의 독창력과 아울러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성공이었고 따라서 성과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 7. 관점?

이 대회에 참가한 분들은 전 보다 넓은 선이 명확하고 불투명하지 않은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큰 친구라는 원으로 엮어 주었습니다. 보다 큰 관점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 나의 칩레 서약

1. 나는 매일 복음공부와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2. 나는 몸과 마음과 언행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3. 나는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4.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5. 나는 정확한 십일조와 금식헌금을 바치겠습니다.
6. 나는 신권을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 나는 신전에 갈수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8.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9. 나는 교회의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 하겠습니다.
10. 나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차, 커피, 알콜성음료, 담배를 금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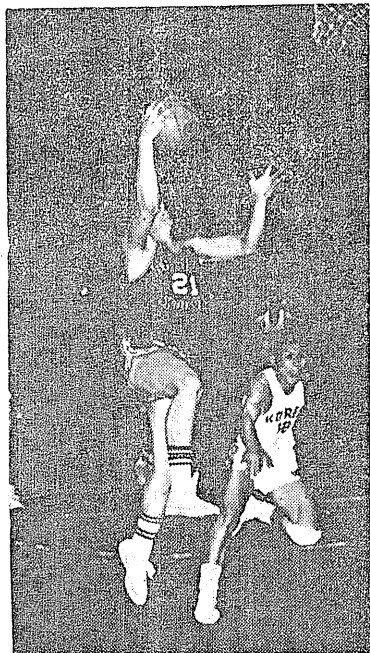




# 길 든 표 범 들

韓  
仁  
相

인간 장대라는 韓國이 命名한 別名  
외에 브리감 영 대학교 운동팀은 루  
키산의 표범이라는 전통적 닉 네임을  
갖고 있다. 이들 농구팀이 실제로 운  
동복을 갈아입고 경기장에 나오기 전  
까지는 표범으로의 모습을 아무데서  
고 발견할 수가 없었다. 경기장에서  
표범으로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  
은 승부에의 끈진 집념, 날센 동작일  
뿐이지 거칠다던지 잔혹하다던지 하  
는 그야말로 야수적인 모습은 아니었  
다. 이토록 길든 표범의 무리가 내한  
7차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많은교  
훈중에서 특히 복음을 함께하는 성도  
로서 느낀 것 몇개를 적어보고자 한  
다.



## 〈수줍은 장대〉

네시간이나 늦게 김포 비행장에 도  
착한 일행은 자기들을 환영하는 표어  
라던지 손짓에 바로 답하지 못하는 수  
줍음을 안고 비행기 타람을 내렸다.  
승부의 세계에 살면서 표범처럼 날세  
게 코-트를 누볐을 이 건각들은 그래도  
어쩔수 없는 상아탑의 흥안 소년들.  
세련 되었다거나 야무지다는 그런 것  
과는 먼 덩덤하고 순박한 모습이였다.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가 울리고  
“Welcome!”이 터져 나갈 즈음에야멋  
적게 손을 들어 보일 뿐 제법 앞으로  
내달아 달려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순하게 길든 이 표범들에게서 대  
하는 순간부터 편안한 친근감과 사랑  
을 느끼게 되었다. 신문이 벌써부터

이들의 키에 대해서 떠들어 놓긴 했지만 이 2m의 장신을 직접 대하니 정말 크다는 것을 눈을 비비며 결국 믿게된 것이다. 2m10cm의 짐. 이 킨스는 그야말로 장대 그것이었다.

### 〈YMCA Hotel 에 여장을 풀고〉

금번 한국방문 경기의 주최자중의 하나인 한국일보사가 마련한 삐쓰로 골장 YMCA 호텔로 직행한 일행은 우선 6층에 여장을 풀었는데, 소나기가 막 끝난 후덥지근한 속에서도 코치 스텐왓쓰형제의 지시대로 하나같이 움직임이 없는 이들의 모습은 순종과 단결이 무엇인가를 새로 느끼게 해주었다. 막상 지정된 방으로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일행은 자기들의 키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침대의 규격을 둘러보면서 멋적은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일단 침실에 짐을 정리한 후 코치의 지시에 의거 일행은 워밍업을 위해 YMCA 체육관으로 내려 갔다. 어디까지나 자유스러운 분위기이면서도 지도자의 지시에 절대 복종할수 있는 그 순종의 정신을 정말 높이 사주고 싶은 것이다. 선수 11명이 둘로 나누어 자유투 연습을 얼마동안 계속 하더니 런닝·슛 연습으로 들어갔다. 장신인 이 표범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각기 연습의 자세로 들어갔고 링에 손이 닿을듯이 높이 슛아 가볍게 바스켓안에 공을 밀어 떨어뜨리는 슛을 시도하다가 찬스가 오면 공을 잡아 위에서 밀기로 내리쪼는 왈, 덩크

슛을 간간 구사하는 것이다. 연습의 실기에 임하는 이들은 코트위에서 자기의 운영을 전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코트밖에 서서 지휘하는 코치에 일임하는 가운데 설세없이 새로운作戰 및 運營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필자는 잠깐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主入이라는 강한 집념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큰 일을 그르친다. 물론 자신이 자신의 主入일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自己是 똑바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弱點을 갖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선생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무리들이 끄는 목자를 필연적으로 要求하게 되는게 아닐까? 그런데 우리의 주변과 생활은 어떤가? 우리는 우리의 선생을 존경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와 목자를 믿고 따르는가? 아니, 좀더 나아가 우리 삶의 위대한 선생이요 또한 목자가 되는 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강령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것일까? 아니면 작은 “나”를 고집하는 중에 결국 “나”와 “너”를 잃고 가는 것일까? 코치는 수시로 선수 전원을 세워 면밀히 동작과 방향을 일러주고 선수는 이를 몸에 익히고져 최선의 시도를 감행하는 것이었다. 일사불탄의 팀워크를 生命으로 하는 농구경기, 이를 운영하는 選手들의 利他的이고 겸손한 精神의 姿勢는 결국 경기운영, 승부같은 것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것

과 두텁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는 다시 보았다. 일단 自己를 否定해두고 全體의 調和와 共同의 目的을 위해 自己를 던졌을때 비로소 크게 살아나는 原理는 妙한 生活의 哲學이 아니겠는가?

사람은 지구라는 커다란 삶의 코트에서 열심히 맡겨진 소임을 이행하느라고 움직이고 있고 위대한 선생은 저만큼 앞에서 우리의 필요와 방향을 끊임 없이 지시해 주고 계신 것이다. 보다 큰 이루움과 보다 높은 영광의 완성을 허가해 주시려…….

#### 〈七戰 六勝 一敗〉

來韓 七次戰에서 둘째번 경기였던 對代表팀과의 첫번 게임을 6포인트, 3골차로 졌다. 實業 농구의 新銳 強者인 전대청을 압도한 기세로 보아 2次戰에서의 勝利도 樂觀하고 있던 터였다. 後에 표범들은 自己들의 敗因이 기후의 변동, 여행에서 비롯한 피로라고 했지만 필자가 생각한 原因은 따로 있었다. 한국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엔 피로하지 않아서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었고 다음날, (실수 있는 시간이 더 허가된 조건)엔 피로해서 졌다는 論理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이 지적했듯이 2次戰의 敗北은 精神무장의 解弛였다. 한끝이나 반끝 差로 통상 승패를 가름하게 마련이었던 本國에서의 치열했던 각축전을 도리켜 보면서 거의 십여 골의 差로 한국 실업팀을 압

도한 이들은 內心 “너희는 弱하다”라는 結論을 내리게 되었으리라. 그것이 戰勢를 敗北로 몰아갔다. 勿論 그 밖의 자잘구레한 조건도 있었겠지만 앞에 지적한 사항, 그것이 主要原因이었다. 기후의 변동과 장거리 여행이 안겨준 피로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第1次戰에서 적의 허실을 알지 못하여 팽팽하게 긴장된 자세로 임했을때 이들은 모든 장애를 극복할수 있었고 戰勢를 勝利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以後로 표범들은 나머지 경기를 모두 큰 점수차로 압도하고 말았으니 브리감, 영대 농구 팀은 來韓 次戰에서 테크닉 면에서 보다는 「輕敵必敗」의 교훈을 보다 실감있게 배워간 셈이다.

#### 〈對戰 前에는 祈禱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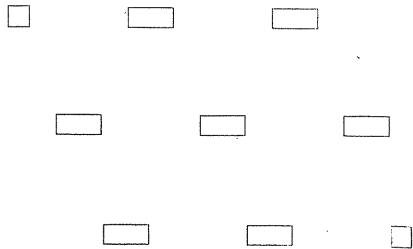
이들 표범들은 언제 어디에서고 경기에 나가기 前에 함께 모여 선수전원이 돌아가며 기도한다. 勿論 개중에는 會員도 있으나 다 함께 기도에 임한다. 꼭 자기들이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훌륭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경기중 부상한다던지 부상을 입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19歲 20歲 혹은 22歲의 흥안들이지만 고향을 수만리 떠난 外地에서도 담대히 대전에 임하고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계속한다. 무리를 단합시키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겠다. 英國 海兵隊는 上

陸戰에서 소기의 成果를 올리지 못하면 제식교련을 시킨다고 한다, 이들은 제식교련을 통해서 무리의 단결과 協同을 기한다. 이와같이 세상에는 단합의 방법으로 제식 교련을 시키는데도 있고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도 있고 함께 절벽을 오르게 하는데도 있다. 그러한 여러 방법 가운데 꼭 어느 것이 더 훌륭하다고 할수는 없는 거 겠지만 祈禱로 단합할때 그리하여 主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더 평안할 수 있지 않겠는가? 팀의 쉐타였던 210cm의 짐, 이킨스는 청소년 대회에 와서 이기야 하는중에 자기에게 큰 키를 주시고 농구의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으며 육체의 기능과 정신의 기능을 최선으로 구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벽한 체육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락하느냐 하는데 있어서 그 수단엔 別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얼마큼 교통하느냐 하는 그 정도엔 크게 관심을 가지며 주와 깊게 친교하는 사람이면 그가 음악을 통해서였거나 체육을 통해서였거나 아니면 美術을 통해서였거나를 묻지않고 다 존경하고 부러워 한다. 그런 뜻에서 짐, 이킨스는 내가 선망하는 두가지, 농구의 재능과 깊은 신앙을 함께 지닌 멋진 큰 키의 표범이었다.

〈끝으로〉

8月 6日, 韓國을 떠나기까지 주일엔 각기 교회로 나아가 예배를 보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여건을 심술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중에 훌륭한 스포츠 맨 씬을 보여 주었다. 나는 그들이 물몬이라는데 큰 긍지를 느꼈고 그들이 무언 중에 이루어는 선교사업에 크게 감사해야 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것은 아니 었으나 7차에 걸쳐 수천 관중을 동원하여 물몬 교회의 대표로 자기의 위치를 제시했고 이들이 체류하는 동안 매스콤은 다각도에서 이들을 선전하여 물몬의 이름을 전하게 했던 것이다. 한국의 성도들과 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형제 자매애를 나누지 못한 것이 유감으로 남기는 했으나 장차 또 어느날을 기약해 두기로 하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건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삼천여 성도와 더불어 가슴에 새겨두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筆者: 地方部長 第一補佐)



# 靑少年少女 大會 參觀記

## 來年の靑少年大會를 提案함

裴 永 天

韓國땅위에 眞實한 하나님의 福音이 들어 온것은 벌써 10餘星霜이 됩니다. 그러나 靑年大會를 우리 地方部가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 생각합니다. 나는 이 훌륭한 機會를今年에 가질수 있었고 또한 이 機會를 通하여 커다란 發展을 갖을 수 있었던 이 大會에 參席한금 2百餘聖徒 代身하여 먼저 하나님에게 感謝를 들면서 教韓國宣部長團, 韓國地方部要長團 그리고 晝夜를 不拘하고 參席한 聖徒를 爲하여 여러가지 面으로 配慮하여 주신 諸位와 우리地方에 있는 많은 聖徒를 이 大會에 參席할 수 있게 이 大會參席을 讓步하여 주신 여러 兄弟姉妹님들에게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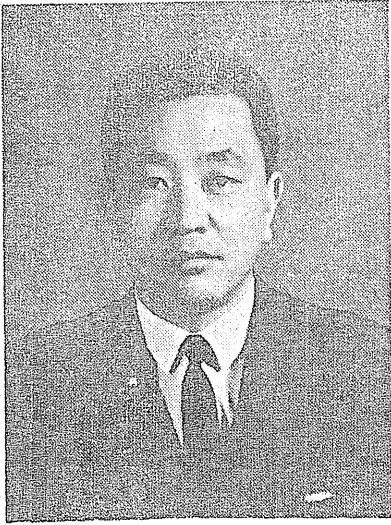
發展途上에 있는 우리 末日聖徒들이 教理와 聖約을 土臺로 工夫하고 研究한것을 2泊 3日의 짧은 기간 동안에 完全히 發表하지는 못하였으나 其間의 習得한 것은 眞實을 通하여 發揮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 었습니다.

우리 末日의 聖徒들은 하나님의 福音속에서 成長하면서도 부리감 양 대관장의 教育理念을 본받아서 心身을 鍊磨하며 그리고 數많은 개척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團體生活의 絶對的 識必性을 이번 大會에서 다시금 再認할수있었음을 또 다시 하나님에게 感謝드립니다.

筆者는 다음 몇가지를 이번 大會에서 卽에사무칠 程度로 느꼈읍니다.

1. 韓國에 있는 우리 末日의 聖徒들도其間形式的이 아닌 무엇인가 指表를 갖고 教會生活을하여 왔다는 것.
2. 聖徒各自의 才能은 하나님의 福音속에서 育成하고 있다는 것.
3. 充實한 團體生活속에서 더욱 더 훌륭한 末日의 聖徒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4. 聖徒相互가 呼稱하는 兄弟姉妹라는 말은 食言하는 것이 아니라 眞心으로 하나님의 福音속에서 이루어진 兄弟姉妹라는 것.

위에적은 몇가지는 大會를 通하여 共通的으로 感知하였던 것임니다만,



이러한 높이 살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이와같은大會에서만 볼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恒常 各支部에서나 地域모임에서 이와같은 教育이 必要하다는 것입니다.

勿論 各支部나 地域모임에서 이와같은 教育이 있었기에 이번大會에서 우리가 보인바와 같은 행동이 있었겠습니다만, 千名을 上廻하는 韓國聖徒中 百餘名이라면 其比重은 매우 적은 것이어서 모든 韓國聖徒가 이러하여야 하고 또한 이리하여 他的 模範이 되도록 教育되어야 한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될때 自動的으로 이러한 教育을 恒常 各自의 몹에 지내질 것이며 各指導者는 祈禱와 하나님의 福音속에서 이젊은 聖徒들을 指導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筆者는 이번大會에 參席하여 주신

여러 求道者 兄弟姊妹님과 그의 父母任들에게 또한 感謝를 들입니다. 勿論 韓國地方部에서 처음으로 開催한 青年大會이라서 參席하신 여러聖徒들 中에서는 好氣心도 많이 衝動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結果에 있어서 主催者의 所機의 目的達成을 보았으며 同時에 많은 求道者 여러 兄弟姊妹님들이 異口同聲으로 豫機치 못한 많은 收獲物을 갖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들이면 처음만나는 사람들끼리 그다지도 親密感을 느낄수 있었다는 點은 무엇인가 젊은 血脈속을 줄달음 치는 他教會에서는 맛볼수 없는 젊은 사람들끼리의 강한 유대 그리고 親切을 느꼈었습니다. 事實 筆者는 이러한 말을 들을때마다 눈속에 더운 눈물이 스쳐감을 느꼈었으며 果然 우리 末日의 聖徒들은 至今 하나님 의 福音속에서 育成되어 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同時에내 自身이 좀더 큰 感銘을 그들에게 주지 못하였음을 反省하여 보기도 하였었습니다. 特히 간증회가 훌륭하고 靈的이었다는 點은 이번大會를 通하여 筆者의 가슴깊이 새겨들만한 한가지였습니다. 數많은 聖徒들이 앞을 다투어 가면서 간증을 들었으며 그나마 時間이 不足하였다는 點 또한 筆者가 屬하고 있는 釜山支部의 境遇 參席者의 48% 간증을 하였고 그래도 時間이 不足하여 아쉬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간증회에서 特히 우리를 感動시켜준 것은 新泰仁에서 오신 허

者의 慈心입니다만, 萬若來年에 다시 韓國의 聖徒에게 이 大會를 爲計하신 기속 兄弟의 男妹, 그리고 韓國에서의 마지막 集會參席인 최재호 兄弟의 男妹, 허 姉妹의 釜山을 떠나 3年만에 성찬, 찬송, 간증을 갖을수 있는 즐거움을 눈물로서 간증하였던 것, 최 姉妹는 韓國땅을 떠나야 함을 눈물로서 아쉬워 하면서 간증 들인것들 그리고 많은 聖徒들의 靈에 充滿한 간증은 眞實로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總括的으로 보아서 이번 青年大會는 成功의이었으며 처음 갖는 青年大會로서는 너무나 훌륭하였습니다. 筆다면 우리 聖徒들은 今年의 經驗을 土臺로 하여 나 한사람을 爲함이 아니라 3千餘 韓國聖徒를 爲한 集會가 되게하기 위하여 主催者側의 勞苦를 多少나마 分配하셔서 大會의 所機目的 達成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준비 하셨으면 합니다. 勿論 各自 父母膝下에서의 私生活에 比한다면 苦生이며 不自由스럽다고 認定합니다만, 團體의

윤직임이 얼마나 貴重하며, 우리들의 개척자들의 勞苦를 되색인다는 의미에서도 2泊 3日의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실것을 제의합니다.

來年의 青年大會를 爲하여 各自가 하나님께 祈禱하고 또다시 만날수 있도록 機約합니다.

끝으로 이번 이 大會를 爲하여 物心兩面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裴一文 宜敎部長 內外分에게 모든 參席者를 代身하여 다시 한번 感謝드리며, 또 限量 없이 手苦를 하여 주신 地方部長團 그리고 相互向上會 會長團 및 各役員相互扶助金의 各役員들에게 再三 우리가 갖는 最大의 感謝의 뜻을 傳하는바입니다.

다음 青年大會에서는 이번에 參席하신 여러 兄弟姉妹는 勿論이며 이번 에 不參한 많은 兄弟姉妹들이 같이 만날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간구하며 恒常 하나님의 祝福이 여러 聖徒들에게 臨하시기를 眞心으로 祈禱드립니다.

(筆者 釜山支部長)

## 주님은 내 목자

주님은 내 목자니 내 부족 없네  
날 푸른 풀밭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 하시며  
불들어 주시고 구해 주시네  
불들어 주시고 구해 주시네

내가 사방골짜에 헤멜지라도  
주 보호 하시니 나 두렵 없네  
당신의 지팡이 내 지주시니  
보혜사 계시니 헤할자 없네  
보혜사 계시니 해 할자 없네

(시편 제23편)

〈시〉

## 創世를 그리다

趙 善 子

금단의 열매가 먹고 싶다는  
절제없는 욕망으로  
生活의 기원은 잉태되다.

하여

낙원에서 버려진  
슬픈 감정의 유산은  
創造라는 기쁨에 잊어가고  
아담과 이브는 오늘을 산다.  
피빛 추리속에  
이브의 진통은 生命을 자리우고  
창세를 지키든 아담은  
無의 신앙으로 믿음을 사리웠다.

하나 집짓  
자라가는 歷史에서  
거무죽한 역겨움을 알고  
절절한 통곡으로  
원시를 부르는 원시인의 망향가처럼

에덴을 그리는  
어리석은 人間들의 열망은  
가느다란 기원으로  
創世를 그리다.

(西部地部)



## 疑心 없이 믿으라



車 鍾 煥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나의 온 생애를 연구에 몰몰하면서 나는 허다한 난관에 봉착하였었다. 그럴때마다 결코 실망하지 않았던 것은 일종의 믿음의 혜택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믿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확실히 믿어야 하고 또한 믿고 살아야 될줄 압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만이 해, 달, 별의 영광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최후 심판과 선한 자를 위한 상과 악한 자를 위한 벌등을 알 수 있으며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며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적게 믿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마태 14: 31) 도마나 베드로의 의심은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그의 의심은 믿으려는 마음은 있지만 보다 더 강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져 하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의심을 갖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병적인 것이며,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괴테는 선을 악으로 화하게 하는 것은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상습적 회의자는 심리적으로 볼 때 병적이랍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병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생을 같이 살 남편이나 부인을 의심하는 사람은 병적인 심리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회의적 신앙 생활에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과 같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파도치는 물결과 같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가다 물 속에 빠진 것과 같이 시험과 유혹과, 죄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신앙 생활이 계속되면 구원은 받기 위한 종교 생활에서 낙오가 되며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먼저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 그에게 빵, 돈, 옷, 사랑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목숨을 건지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은 모사이야서 3장 12절과 니파이서 32장 19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구원 받기 위해서는 회의적 신앙 태도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英國의 作家 힐라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있어서의 피로를 모두 다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확실히 만져 보고 믿으려니와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이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나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의심합니다만, 세상에 의인이 가난하게 살고 고생을 하며, 악인이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또 불의와 죄악이 너무나 많이 세상에서 날뛰며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살려고 하는 자가 불행에 처해 있는 모습은 보고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평을 합니다만, 이런 결론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아서는 않습니다. 우주의 넓은 공간의 한 정점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근시안 적으로 판단함은 잘못입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흐르는 긴 역사에서 일 시점을 보고 속단함은 모순

이요, 속단인 것입니다.

환언컨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나 통치를 경의함은 속단이요, 근시안적이요, 모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환상이라면 몇 사람에게는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수백명에게 보이는 것은 심리학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을 본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할리 없으며, 더욱이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거짓 간증이 2000여년을 내려 올 수는 더욱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과 예수는 믿지만 기적을 의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나 科學徒에 많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당면하는 자연 법칙과 기적은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나 섭리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동정녀에 의한 예수의 탄생이라 던가, 부활이라 던가, 병자의 축복,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한 기적등은 자연 법칙과는 거리가 멀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며 자연 법칙을 초월한 많은 것을 역사하시는 때문입니다.

어떤 쓰런 우주인은 「우주를 돌아 보았지만 하나님을 못 본 것으로 보아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미국 우주인은 대기권에 올라가 보니 우주의 질서 정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인정했으며 아름다운 황혼, 우거진 숲, 아름다운 폭포, 바다의 신비로움을 보고서 창조하신 이가 있음을 더욱 알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인 없이는 결과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심, 인간의 도덕심, 인류의 역사로 보아서 이들을 역사하신 분이 계시지 않음을 어떻게 알 수 있던 말입니까?

자기 눈으로 못 보았다고 존재를 부인함은 속단이요, 경솔한 행위입니다. 과거에 본 사람이 있었고 말일에 와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 첫째 마음 가운데 어떤 교만이 없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올라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의심이 많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세상 지식이 많다고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틀스토이는 「늘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말없이 일하는 사람이 더욱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젊은 이들이 과연 얼마나 세상 지식이 많겠습니까? 젊은 科學徒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이작 뉴

톤, 파스칼,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도 예수를 믿었으며, 수만 명의 선교사도 믿고 있기에 복음을 전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교만한 세상 지위 때문에 의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보다 세상 지위가 더 높다고 흔히 보는 미국, 영국의 대통령이나, 왕, 수상들도 믿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내 마음과 생활이 깨끗한 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의심하게 되며 이로 인해서 타락하며 타락할수록 남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셋째 게으르게 예수를 믿는 자가 의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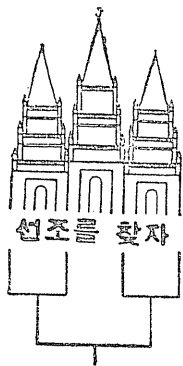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커럼버스는 지구는 둥글다는 확신을 가지고 항해함으로 해서 미 대륙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중국 성언에 「진전한 지혜의 법칙을 아는 자는 그 법칙을 사랑하는 자보다 못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행하는 자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신앙심을 길러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매일같이 기도 하십시오.

(筆者 : 서술師大講師, 理學博士)



완전 무결한 자료로 신전 의식을 행하는 것은 중요 합니다. 그러나 의심없는 믿음없이 는 아무 뜻도 없는 것이 되고마는 것입니다.

## 神殿儀式과 系譜事業

朴 在 岩

신전의 식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서 계보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할수는 없습니다.

신전 의식의 사명인 죽은 자를 위한 대리침례와 신권의 임명과, 영원한 결혼과, 가족임봉을 신전에서 행하는 것이 결국, 현재의 천국, 사후의 천국, 부활후의 천국, 심판후천의 국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으로 소망을 이룰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할수 있으나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신앙능력과 의롭게 행사하는 신권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신전의식과 계보사업은 우리 말인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육신의 기회를 갖고 이 세상을 거쳐갈때에 다 누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

지자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주의 크고 두려운날이 임하기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와서 저주로 이땅을 치지 않도록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명과 예언과 진리의 말씀을 주셨었습니까? 계명의 말씀중에는 지상에서 집행하는 일이 천국에서도 똑같이 시행된다는 말씀을 주셨으며, 멸망의 날에 선조의 마음을 찾아 구함으로써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예언을 주셨으며, 진리를 따라 살아갈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조를 찾아서, 현재의 우리와 선조의 영을 결합시키도록 말세에 엘리야 선지자가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셔서 신전 건립을 명하셨으니 이것은 신전 건립의 목적이 천국의 법의 의식을 온전히 행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특정한 지상의 성소로서의 의의를 갖는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는 문화와 풍속과 종교와 신앙에 따라 자기들을 낳아준 선조의 영혼을 찾으려는 여러형태의 노력을 활발히 진행했었으며 또 하고있습니다.

에집트의 피라미드 속에 누워있는 수많은 미이라들, 부모를 존경하고 선조를 섬겨야 함이 인륜의 근본임을말하던 공자의 유교사상, 인간이 자신을 수도하므로써 열반의 세계에 이르고 한석가의 불교사상은 불상을 만들게 했고, 불공을 드리도록 만들었던것입니다.

죽은자를 위로하며, 그들의 혼을보 기 위해 무당을 불러서 대나무를 흔들게하며, 장님에게 점을치는 등의일은, 먼저 돌아가신 선조와 부모형제와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속성이어서, 死後 考道論도 우리에게 평범한 율례로서 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에게 관심이 지극할 때에는 꿈으로 그 사람이 보인다고도 합니다. 그들과 우리말을 나누기도 한다고 합니다.

민속신앙으로서 선조들은 제사때에 지방문을 쓰기위한 기록이라던가, 비석의 글자, 족보, 계보, 가승보를 전해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축복하심이 아닌가고 생각

되도록 반가운 것입니다. 그것은 말세에 회복된 하나님의 참 교회가 요구하는 신전사업중에 하나인 계보사업에 돌도없는 반가운 자료인 때문입니다.

선조의 구원없이 우리의 구원도 없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실행할수 있도록 해주신 선조들의 업적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의식으로서의 신전사업에앞서야 할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임을 믿는것입니다. 완전무결한 자료, 신전의식, 모두가 중요한 합니지만 의심없는 믿음없이 아무뜻도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신전의식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뜻있게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권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지상에 다시 찾아온 것도 말세에 선지자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의 교회들 회복한 것도 신전 사업에 그 최종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신전사업은 그 기초적 행정업무를 계보사업에 두고 있습니다. 신전의 축복을 받고저하는 사람의 기록서가 제출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전의식을 통하여 많은 처소중에 가장 높은 곳으로 찾아 잡시다.

(筆者：地方部系譜擔當評委員)

## 도성박 저멀리 (79장)

작사자 : 세실 후탄시스 알렉산더

작곡자 : 존 헤취 고우어



머리 속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의 상황을 그려 봅니다. 나의죄와 우리의 허물을 짚어지시고 모든 수치와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가사에 담겨있는 참뜻을 깨달아서 입술로 부르지 말고 심령으로 부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번역에 있어서 원어의 뜻을 제대로 다 살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며 노래에 있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찬송가는 그런대로 모든 어구를 다 번역하여 우리말로 옮겨놓았습니다. „성도의 벗“을 통하여 여러 분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부 장께서는 빠르면 내년까지 새로운 찬송가를 편집 출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본에서 인쇄할것 아어서 가사의 오자, 탈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고 찬송가 수가 빈약하 때문입니다. 다음 증보 개정판에 참고로 하기 위해 성도들의 협조를 요구 합니다. 찬송을 부르시다가 어구

가 음율과 맞지 않는다면가하는 번역상의 시정점을 지적하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해서 다음에 출판되는 찬송가가 완전한 것이 될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지휘자에게

찬송 연습 시간을 잘 조개어 이용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찬송연습 시간에 지휘자의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일절에서 끝질까지 다 함께 부고 나서 연습을 마쳐버린다면 찬송연습시간이 아니라 개회기도에 이어 찬송하나를 더 부른 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달을 4주로 생각해서 이야기 할것을 미리 구상해 두고 메모해 두다가 장황하지 않게 조용히 이야기해 듣는이로 하여금 쉽게 이해 할수 있게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속도기호가 88이므로 보통속도로 부르면 되며 찬송을 부를때의 무드는그 속도 조절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아닙니다. 느린 곡을 빨리 불러도 안되지만, 빠른 곡을 느리게 부르는것처

럼 맥이 빠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휘자는 노래의 시작과 중지 그리고 속도 조절을 위하여 앞에 서서 지휘봉을 흔든다 하겠습니다. 반주자나 회중이 느리게 부른다고 판단되면 말로써가 아니라 지휘봉과 음성으로써 서서히 제 템포로 끌어 올리는 기교를 연습해야 하겠습니다. 잘 안되면 간주하는 동안 반주자에게 살짝 “빨리 쳐 주세요” 귀뜸을 해주고 지휘봉을 잘 사용하면 회중이 따라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회중이 속도에 대해 늘 관심을 갖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지휘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실은 때때로 회중은 지휘자 보다 음감이 예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주자와 지휘자간에 사전협의 없이 반주자가 전주를 하는 도중 지휘자가 시작하겠다고 손을 드는 경우가 간혹있지만, 지휘자를 보지않는 대부분의 회중은 전주가 어디까지 가서 끝난다는것을 듣고 알고 있어서 지휘자가 시작한다고 손을 흔들어도 노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를 가끔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중이 음에 민감하다는 증거라 생각됩니다. 감정 표시는 “단순하게”로 되어있습니다. 아무런 노래하는 기교가 필요없습니다. 담담하게 불러 나가면 됩니다. 어떤 기교 예를 들어서 크레센도나 디크레센도 또는 어떤 음에엑센트들 넣는다고 하는 따위는 도리어 이 찬송의 품위를 하락 시킵니다. 이

찬송에 있어서는 무기교가 기교인 것입니다.

반주자에게

찬송을 부를 때 반주자는 찬송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보만을 연주하여 가사가 지닌 영적정신을 음으로 표현해보려는 의도가 결여된 채 연주한다는 말입니다. 반주자도 가사의 뜻을 새기면서 연주하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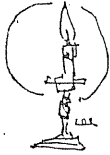
E장조를 Eb장조로 연주하면 왼손 손가락 놀리기가 쉽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이 곡은 전체적으로 낮은 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Eb으로 치지 않도록 합시다.

악박으로 시작되는 곡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불러야 함으로 마디의 첫음을 세 박자로 부르는 일이 없도록 연주해야 하겠습니다. 멜로디가 단순하기 때문에 베이스음이 상당히 기교를 넣어 화음이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왼손을 움직여 베이스 음이 잘 들리도록 연주해 주십시오.

첫째 단 셋째 마디 둘째 음과 둘째 단 둘째 마디 둘째음의 테너 음과 베이스 음 사이의 간격이 너무 길어서 왼손으로 짚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러한 경우에는 테너음을 바른손으로 —멜로디, 알토, 테너— 세음을 차고 왼손으로는 베이스 음만 치면 됩니다.

(정 대 판 기)

## 編輯者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감사합니다.

오랜 침묵중에서 지내오는 동안 새삼 많은 시간이 혼란을 발견했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보내 주신 성도의 빛을 받을 때마다 받음의 기쁨에 앞서 아직도 여러 성도의 마음에 저를 위한 기도가 담뱃차 계심을 알고 먼 거리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실때가 많았읍니다.

생각같아서는 여러 가지 느끼고 생활속에서 체험한 일들을 문안과 아울러 보내드리고 싶었으나 심중의 주저함과 깊이 파고드는 기억에서 꺼려지는것들 때문에 결국은 허다한 종이만 낭비한 채 마냥 마음에만 담아 두었읍니다.

성도의 빛 편집자 및 성도의 빛을 만드시느라 수고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을 모범 삼아 가능한 것을 넘어 이토록 험한 곳에서나마 살아 갈 수 있음을 감사 드립니다. 성도의 빛을 받을때 마다 함께 근무하는 오인

용 형제와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 여러가지 이야기겠으나 진실된 것들이지요. 집으로 부터 떨어져 생활한다는건 어느모로 보나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마음의 이웃, 신앙의 이웃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토록 기쁜일도 없지요. 결국 신앙은, 마음속에서 우선 썩어 트고, 생활가운데 자라서, 생애를 통해 여물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있어선 과거에 이어 현재와 미래가 끝나지 않음을 알기에 그 마음 그 신앙을 얻도록 노력 하렵니다.

내내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투를 바라며 신의 뜻하신 가운데 그의 은총 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싸이공에서

군우 151~501

주월 한국군 사령부 통신

전자 처

병장 유 춘재

## 編輯後記

염천지경에도 원고를 써 주시고 손수 갖어다 주시는 부살핌과 성도의 빛이 발전되어 간다는 격려를 주실때마다 더욱 알참을 다짐 하고 있습니다. 계속 원고와 격려의 말씀 있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소녀대회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 소녀 대회의 성격도 같이 파악해서서 내년의 대회를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M)



일 반 용

말일성도 용어집	10원
불본이란	100원
물문경(가족표지)	1,200원
물문경	150원
우정 프로그램	30원
효과있는 가르침을 위한 제언	50원
어린이 찬송가	100원
찬송가	50원

주 일 학 교 용

그리스도의 생애	100원
기이한 업적(상권)	100원
기이한 업적(하권)	100원
말일성도란?	100원
복음에 맺세지(하권)	10원
복음의 실천	100원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의 이상	100원
생활에서 본 회복된 교회의 원리	150원
심전중의 지도자	150원
우리들의 표준 심전(상과 하)	10원
주님의 맺세이지	100원
주님의 맺세이지(교사 보조 교재)	100원
회복된 교회의 역사	100원
이야기로 엮은 구약 성서	150원

상 향 회 용

강력한 지도력을 통한 인격 강화	20원
민속 무용 교본	10원
봉사 이삭줍기반 공과	100원
상향회 역원 지도서	50원
상향회 선교부 지도서	50원
선택의 밤(봉이반 공과)	50원
장미반 공과	150원
지도 원리	50원

신 권 회 용

아픈 신권회 지침서	20원
인간과 하나님	100원
집사 교분 지도서	150원
회복된 성교회	100원

유년 주일학교

우리의 종교생활(상권)	100원
우리의 종교생활(하권)	100원
주안에서 자라남	150원
복음안에서 자라는 어린이	150원

圖書案内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敎部

(住 所 錄)

宣 敎 本 部 } 淸 雲 改 部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⑦③ 3995
東 部 支 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34의 19 ⑨② 1005
三 淸 支 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번지 ⑦② 3596
西 部 支 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의 1 ⑦③ 1208
城 北 支 部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의 13 ⑨② 0744
新 村 地 域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7의 13
永 登 浦 地 域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54의 15
仁 川 地 域	인천시 인현동 20번지 대화제과 2층
大 田 地 域	대전시 대흥동 440의 1 ② 6273
大 邱 中 央 支 部	대구시 삼덕동 2가 24번지 ② 6659
釜 山 支 部	부산시 동대신동 3가 95번지 ④ 7071
東 區 支 部	부산시 동구 수정동 658의 10
光 州 地 域	광주시 금동 165번지 서울 건축세료상 2층

성도의 벗

1967年 8月 30日

通卷 第26號

發行人 裴 一 文

編輯人 洪 武 光

發工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 宣敎本部

印刷所 寶 晉 齋 印 刷 所